주일 예배 2026 년 11 월 1 일 오후 1 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찬양과 경배 / 다같이

기도 / 조준기

성경 봉독 / 갈라디아서 6 장 17 절 / 다같이

성가대 찬양 / 능하신 주의 손

말씀 선포 / **믿음은 흔적을 남깁니다** / 박화신 목사

성찬식 /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찬송가 512(신) 315(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예수께서 오실 때에 / 찬송가 564(신) 299(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 늘 설 교 말 씀 요 약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상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를 설명하는 대신, 자기 몸에 남은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믿음 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예배드리는 모습은 그대로인데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그대로이고, 말씀을 읽어도 자신의 생각을 고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흔적을 남깁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어쩌면 은혜란 죄를 용서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을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을 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무감각해지지 않는 것, 복음에 어긋나는 일을 보며 마음 아파할 줄 아는 것, 바로 그런 믿음의 흔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 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지난 주
설교 요약

하나님이 쓰셨는데, 왜 부숩니까?

왕하 18:3-6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용하셨던 것이 오늘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한때 은혜의 통로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데 사용하셨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백성을 살리는 표지였던 놋뱀이 사람들의 숭배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놋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대신, 놋뱀 자체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켜 온 전통, 익숙한 예배 방식, 과거에 열매를 맺었던 사역이 어느새 지켜야 할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시작한 일을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보다,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 온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익숙한 것을 지키는 일이 언제나 신실함은 아니며, 그것을 내려놓는 일이 반드시 배신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낡은 것을 무조건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익숙함인지 묻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이유만으로 붙들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살펴야 합니다. 교회가 과거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 개혁은 비로소 살아 있는 현실이 됩니다.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보존하는 데 머물지 않고,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 명 샘 소 식

1. 2026 년 교회 표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이미 임재해 있습니다.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펼쳐지길 소원합니다.**

2.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의 힘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듯, 우리의 영은 말씀을 통해 건강해집니다.**

3. 2026 년 11 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한 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는 귀한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4. 11 월 22 일 주일,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5. 11 월 29 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각 전도회 총회 있습니다.

6. 건강 회복 중에 계신 분들(강영호, 박래석, 한규철)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7. 김종원(윤하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12 월 중순 즈음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11 월 예 배 위 원					
안 내	한규철		김정신		
기 도	조준기(1)	한광기(8)	최명희(15)	최상천(22)	조은영(29)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 시	주일 오후 1 시	주일 오후 1 시	주일 오후 3 시	월요일 저녁 7 시 30 분	금요일 저녁 8 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